

2018년 10월 20일 한외사연구회

동월, 공용경, 『사조선록 역주3』 김한규 역, 소명, 2012.

발제2. 『사조선록』 上, 下(pp. 163~189)

주연정

공용경의 『사조선록』 해제

- 『사조선록』은 명 세종 가정 16년(1537: 조선 중종 31년)에 제3자 주재후 (후일 목종)가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던 正使 翰林院修撰 공용경이 조선에서 귀국한 다음 해에 중국에서 출판한 기행문.
- 공용경이 이끈 명의 가정 사절단은 가정 15년 11월에 출발해서 가정 16년 9월에 조정으로 돌아갔음.(총 10여 개월) 한양에 도달한 시간은 가정 16년 3월 10일이었고, 7일간 머물렀다가 3월 17일에 한성을 떠나 4월 8일에 압록강을 건너고, 4월 15일에 『사조선록』 완성.
- 책의 구성은 상하 2권으로.
 - 상권은 공용경이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경험한 의례에 관한 기술.
 - 하권에는 여로에 지은 수백 편의 시들과 의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은 산문.
 - 공용경의 『사조선록』은 조선을 찾는 명의 사신들의 필독서가 됨
- 공용경 일행은 조선을 방문해서 두 가지 새로운 외교적 의례를 주장해서 관철시켰음.
 - 1) 교외에서 조서를 영접하며, 오배삼고(五拜三叩,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조아리다)를 행하는 것이고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 참고)
 - 2) 조서의 영접 행사에 생원(生員)을 참여시키는 것. 이를 통해 명과 조선의 예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외교관들의 의례 논쟁은 『사조선록』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조선실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공용경은 귀국 후 한중 외교 상의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음.
 - 1) 등황(騰黃)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 공용경이 복명하면서 “지금부터는 예제에 관해 조칙으로 천하에 고할 일이 있으면 그 나라 사신이 조공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법식에 따라 조고 한 부를 등황해서 그 나라 사신이 가지고 귀국하여 스스로 개독하여 의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일통을 이룬 것을 빛내게 했으면 좋겠다(중종실록 36년 10월 7일)”고 건의하여, 예부가 동의하고 황제가 허락해서, 이후 한중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되었다.
 - 2) ‘종계변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일조: 조선 왕실의 계보가 『대명회전』에 잘못 기재되어 발생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는데, 『대명회전』의 수찬자(修撰者)로 참여한 공용경이 이를 수정하는 데 일조함.
 - 3) 조선에 대한 의전 격상: 조선에서 귀국하여 조선이 매우 예의가 바르고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칭송하면서, 예부에 건의하여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를 격상케 하는 등 조명 외교 관계에 적지 않게 공헌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 책은 『明史』 「예문지(藝文志)」에 “공용경 『사조선록』 3권”이라 기재되었을 뿐 청의 『사고전서(四庫全書)』에는 수록되지 않음.

『使朝鮮錄』

「『使朝鮮錄』序」

- 조선으로 사신을 파견한 목적 및 저술의 구성과 의의 서술.
- 황자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조선에 사신 파견
- 사신 임무를 받고 나서 조선과 관련된 의전 등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를 알아보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
- 기행문의 내용은 조선의 영토, 산천 등 지리적 정보와 의례
- 의례는 세 가지로 분류. 1) 출사(出使)의 예 2) 방교(邦交)의 예 3) 사신이 맡은 임무
- “단지 뒤에 오는 사람이 참고할 만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잘못될 바가 없다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使朝鮮錄』上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각종 의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음.

1) 出使之禮

一. 영조의(迎詔儀, 조서를 맞는 의례)

- 조서(詔書)를 맞이하는 행궁(行宮) 설치의 예. (서대문 부근의 모화관에 장전을 설치, 성 안과 경복궁까지 걸쳐 작업)
- 조선의 임금, 왕세자, 문무백관과 유생들이 의식 중 위치, 의복차림, 절과 같은 조서를 받을 때의 예, 조서를 받고 경복궁으로 이동할 때의 예

一. 개독례(開讀禮, 조서를 열고 읽는 의례)

- 경복궁 안에서 조서를 열어서 읽는 자리 설치에 대한 의례
- 임금, 왕세자, 유생이 위치하는 자리,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조서와 그 조서를 열고 읽을 때의 의례가 자세하게 나와있음. (鞠躬 四拜 興平身, 萬歲)

一. 연도영조의(沿途迎詔儀, 연도에서 조서를 영접하는 의례)

- 사신단이 이동하는 도중에 지방에서 조서를 맞이하는 의례

一. 알묘의(謁廟儀, 묘를 참배하는 의례)

- 문묘(공자묘)를 참배할 때의 의례. 학생, 유생들과 詔使의 예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

2) 邦交之儀

一. 국왕이 베푸는 다례(茶禮)의 예절

一. 국왕이 접견하는 예절

一. 국왕과 왕세자가 연회를 베풀어 빈객(賓客)을 대접하는 예절

一. 조선의 대신들이 참현(參見)하는 예절

一. 국왕의 송별 예절

- 一. 연도에서 영접하여 위로하는 예절
- 一. 연도에서 연회를 베푸는 예절

3) 使臣의 직무

- 一. 道里의 거리: 사절단이 지나간 길과 관련된 거리 정보에 대해서 명시.
- 一. 산천의 경계: 강과 산의 지리적 정보에 대한 부분.
- 一. 각 도의 州, 府, 郡, 縣의 소속
- 一. 연도의 여러 관원들이 영접하고 환송하는 예절
- 一. 군사가 차례로 호송하는 예절

<연회에서 국왕과 문답한 말>

- 7일 방문 기간 중 6회 연회(왕세자 1회)를 하였음. 그 연회 동안 국왕 및 왕세자와의 문답을 정리해 놓았음.
 - 첫 번째 연회: 조선 국왕과 왕세자의 천자의 신하된 도리와 예를 다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명의 태자가 출생한 것을 축복함. 명의 사신은 조선이 예에 능하며 명에 대한 공경심을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함.
 - 두 번째 연회: 명의 사신을 더 잘 모시지 못함을 부끄러워 함. 이에 명 사신은 조선의 학문과 명을 존경하는 것을 높이 삼.
 - 세 번째 연회: 왕세자 주최 연회.
 - 네 번째 연회: 종계변무에 관한 이야기. 『大明會典』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고 이성계 부자가 고려의 네 왕을 시해하여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이후 1394-1588년에 걸쳐 조선의 5대 국왕과 25명의 사신이 19차례 주청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신으로 온 공용경에게 다시 한번 조정을 요청하고, 이에 공용경이 긍정적으로 대답.
 - 다섯 번째 연회: 근정전에서 연회를 열고 주변 산천의 경관을 즐김
 - 여섯 번째 연회: 전별(餞別). 조선은 명 사신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고, 명 사신도 조선의 이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음.

『使朝鮮錄』 下 (pp. 163~189)

사행 여로에 지은 공용경 개인의 감상과 관련한 운문(일부 산문)

- 북경에서 조선 국경으로 이르는 길(북경->북방의 군현들)
 - 북경
 - 삼하(三河, 북경 동쪽의 현)
 - 어양(漁陽, 북경 밀운현 남서쪽에 설치한 군)
 - 옥전(玉田, 하북성 옥전현)
 - 풍운(豐潤, 하북성 풍운현/산해관에 점점 가까워짐, 만리장성의 기점)
 - 변방의 경계에 있는 작은 읍락
 - 칠가령역, 영평(永平, 하북성 노룡현에 있는 부), 북평(北平, 하북성 옥전현의 군)

- 유관(榆關, 명대에 이곳에 역참을 두었음)
- 산해관
- 중전소(中前所, 所는 명대의 군사제도인 위소衛所의 하나, 중전소는 산해관에서 삼십리 떨어진 곳에 위치, 요동도지휘사사의 통솔 아래 있었음)
- 고령역(高嶺驛, 산해관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역)
- 대사하역(大沙河驛, 하북성 사하현에 위치한 역참, 바다에 가까움)
- 대릉하소(大凌河所, 요녕성 금현 동쪽 40리 떨어진 곳에 所를 둠)
- 십삼산역(十三山驛, 십삼산은 소릉하에서 의무여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산)

- 여정에서 변화하는 계절에 따른 날씨, 풍경, 일상 등을 운문으로 기록
 - >북경성에서의 가을, 하북성 요녕성으로 올수록 겨울이 되는 계절의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
- 所, 군현 등 명대의 요동지방의 군사 및 지방제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음.